

인쇄단체 · 기관뉴스

1 화족

- ▶ **이창호** 이호문화사 사장의 장녀 지은 양이 지난 7월 17일 동대문 케레스타 13층 웨딩의 전당 모나코에서 화족을 밝혔다.
- ▶ **박성구** 한국소문사 사장의 장녀 영경 양이 지난 6월 26일 강남웨딩컨벤션 그랜드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2 부음

- ▶ **이동준** 한길기획인쇄 사장의 부친이 지난 6월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3 이전

- ▶ **애드그린인쇄**(대표이사 최범순)는 최근 사업장을 성동구 성수2가3동 277-47로 이전했다.
- ▶ **쥬다인비즈니스**(대표이사 이상욱)는 최근 사업장을 금천구 독산동1000-5로 이전했다.
- ▶ **웅진문화사**(대표 조익상)는 최근 사업장을 노원구 월계동 473-15로 이전했다.
- ▶ **현대씨앤피**(대표이사 최은철)는 최근 사업장을 성동구 성수2가2동 13-208 현대빌딩 4층으로 이전했다.
- ▶ **소인인쇄사**(대표 이증기)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충무로5가 36-10 경원빌딩 1층으로 이전했다.

김상래 사장, 신구대서 특강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5월 27일 김상래 대표이사가 신구 대학교의 그래픽 야초 미디어 학과의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중소기업 경영자가 대학생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가치관 경영)'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중소기업의 문화경영과 관련한 성도GL의 비전과 사례를 나누며 대학생들에게 기업과 조직, 사회공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인쇄산업이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인협, 키페스서 한·중·일 국제인쇄포럼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앤엑스는 'KIPES 2010(국제인쇄산업전시회)' 기간인 9월 8일 오후 2시부터 일산 킨텍스 전시장 2층 205호 세미나실에서 '한·중·일 인쇄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한국은 세계 인쇄중주국이며, 일본은 인쇄기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중국은 신흥 인쇄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국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아시아는 물론 세계 인쇄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의 '한·중·일 인쇄문화산업의 비전'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제1강연은 모치다 사토시 고모 리코퍼레이션 전무이사가 '일본의 인쇄산업 현황과 한·중·일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제2강연은 왕대마오 중국인쇄기자재협회 회장이 '중국의 인쇄산업 현황과 한·중·일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제3강연은 김양평 GMP 회장이 '인쇄후가공 분야의 기술발전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강연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국제포럼은 한국어·일본어·중국어 등 3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문의 : 대한인쇄문화협회 02)335-5881,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키페스 2010, 사상 최대규모 9월 8일부터 KINTEX전시장서 개최

인쇄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온 KIPES 2010이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금년 전시회는 국내외 제조사들이 자사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2만1384㎡ 규모의 전시장에서 선보이며 최신 인쇄기술을 주도,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KIPES 전시회에서는 프레스 및 프리프레스관, 디지털인쇄관, 지가공, 포장 및 제책관 그리고 라벨, 스크린 및 특수인쇄관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특히 지난 5월 영국에서 개최되었던 IPEX 전시회에서 관심을 끈 인쇄관련 장비들의 디지털로의 변환, 웹 투 프린트(Web-to-print), 주문형 인쇄 (printing-on-demand), 색상교정(color management) 및 인쇄공정관리 솔루션 등이 대거 선보이게 된다. KIPES 2010 전시 기간 중에는 약 30여회 이상의 인쇄관련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으로 특히 한중일 인쇄기자재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인쇄산업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국제컨퍼런스인 IGAtec 2010(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2010)을 비롯하여, 인쇄물 수출을 위한 표준화, 인쇄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융합등 관련세미나 등 다수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9월 9일, 10일 양일간 총 4회에 걸쳐 킨텍스 전시장과 인접한 파주인쇄출판도시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첨단인쇄시설을 확인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KIPES 홈페이지_ www.kipes.com

서울인쇄센터, GMG ColorServer / PrintControl Pro 도입

서울인쇄센터는 하이엔드 컬러 매니지먼트 솔루션 공급업체인 독일 GMG의 한국 총판인 휴닉스로부터 GMG ColorServer 4.6 및 GMG PrintControl Pro 2.0을 최근 설치했다. 서울인쇄센터에서 이번에 도입한 GMG ColorServer 4.6은 다양한 종류의 RGB 데이터를 최종 인쇄조건에 맞도록 CMYK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며, GMG PrintControl Pro 2.0은 산업표준 ISO 12647-2와 12647-3을 따라 인쇄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툴이다.

서울인쇄조합, 폰트릭스·헤움서체 무상 공급

서울인쇄정보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MAC용 '폰트릭스·헤움 출력용 폰트 239종'을 CD에 담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번 폰트 무상 공급은 지난 4월 27일 서울조합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은 헤움디자인(대표이사 김진덕)의 지원으로 출력용 폰트 239종을 CD로 제작, 배포하였다.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서체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폰트릭스 T. 365-8751, 헤움 T. 3425-0700

대구도공-대구경북인쇄정보조합, 양해각서 체결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와 대구경북인쇄정보조합(박희준 이사장)은 지난 7월 12일 공사 회의실에서 윤성식 사장과 박희준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출판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개발과 산업용지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대구출판산업단지 산업용지 공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분담에 협의했다. 한편 대구출판산업단지는 2006년 6월 인쇄출판업이 집중돼 있는 중구 남산동 일대가 재개발 예정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2008년 10월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협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지난 1월 사업승인을 받은 뒤 6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쇄·프리프레스뉴스

고문당인쇄, 대구시 지정 스타기업에 선정돼

고문당인쇄(대표 장선운)는 지난 7월 9일 대구시로부터 2010년 스타기업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스타기업 17개사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고문당인쇄(주)는 유통 및 서비스분야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8색 인쇄기를 도입하는가 하면 인쇄 기술개발 및 인쇄물 수출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들은 섬유·생물·화학산업군에서 4개 기업, 기계금속 및 자동차 관련 산업군에서 6개 기업, 그리고 전자·통신·융합기술·S/W 산업군에서 5개 기업, 그

한국후지제록스 신임 사장에 우에노 아사키 씨 선임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6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우에노 아사키 일본 후지제록스 상품개발본부 OEM 영업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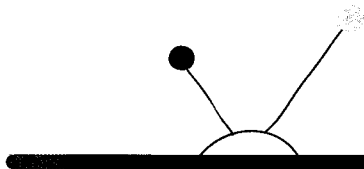
우에노 아사키 신임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1960년생으로 일본 도쿄이과대학 경영공학부를 졸업한 후 1983년 일본 후지제록스 본사에 입사했다. 이후, 일본 내 최초의 디지털 복합기 상품 기획, 해외 사업 기획 등 다방면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알토에 위치한 제록스 인터내셔널 파트너스(Xerox International Partners)에서 주요 대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부를 총괄하며 국제적인 감각과 리더십을 두루 섭렵했다. 상품 및 사업 기획과 영업 부문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우에노 신임사장은 2008년부터 일본 후지제록스 본사의 상품개발본부 OEM 영업부장으로 재직해왔다. A3 컬러 디지털 복합기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후지제록스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한국 사무기기 시장에서 우에노 신임 사장이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후지제록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소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우에무라 사토시 선임

(주)리소코리아(대표이사 우에무라 사토시)는 지난 6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리소코리아 우에무라 사토시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리소코리아 대표이사로 선임된 우에무라 사토시 대표는 1957년생으로 리소코리아의 모기업인 리소과학공업주식회사에 리소그래프 판매사원으로 입사해 14년 동안 리소그래프의 다이렉트 세일즈와 딜러 세일즈를 담당했다. 이후 15년간 경영기획부와 해외관리부 등에서 관리실무를 담당해 왔으며 2010년 2월부터 리소코리아 사장으로 재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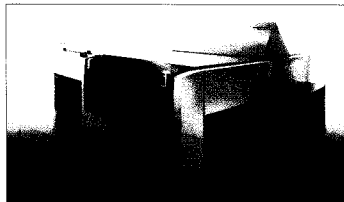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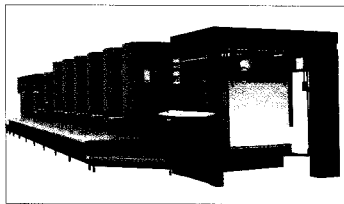


리고 유통 및 지식서비스 산업군에 2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은 앞으로 3년간 대구시의 스타기업 육성 직접사업비지원과 더불어 각종 정책 및 시설자금 이자 금리 우대, 지방공단 분양 가점 부여, 세무조사 유예, 육성전담기관 등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우대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육성전담기관의 직원을 PM으로 지정받아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 단위 및 중앙정부의 R&D 공모사업 신청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현진인쇄, 하이델베르크 CTP 및 인쇄기 설치

현진인쇄(대표 박희웅)는 최근 패키징 인쇄를 위해 하이델베르크 프리프레스에서 인쇄기, 그리고 워크플로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현진인쇄는 그라비아 인쇄기를 사용하여 대량의 종이컵 인쇄를 하던 업체였으나 최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급 패키징 인쇄로 진입해 매엽 인쇄기 분야의 투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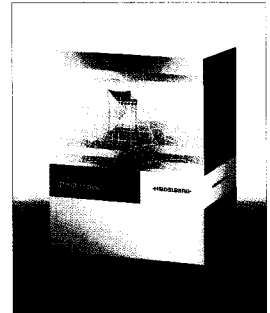


이에 따라 현진인쇄는 최근 서멀 CTP, 수프라세터 105와 패키징 인쇄를 위해 코팅 유닛이 있는 스피드마스터 CD 102-6LX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으며 아울러 프리넥 패키징 워크플로를 구비해 프리프레스에서 인쇄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었다. 하이델베르크의 수프라세터 105는 내장 펀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확한 핀맞춤으로 인쇄 작업 준비 시간 및 손지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진인쇄는 새로운 장비의 구매를 계기로 고객을 위해 보다 뛰어난 품질의 인쇄물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사, 프리넥 워크플로 설치

매일경제신문사(대표이사 장대환)는 최근 하이델베르크의 프리넥 프리프레스 매니저(Prinect Prepress Manager),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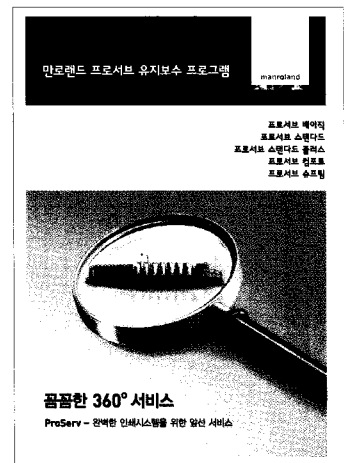
리넥 메타디멘존 (Prinect Meta Dimension)과 프리넥 시그나 스테이션 (Prinect Signa Station)을 도입, 사용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프리넥 프리프레스 매니저는 디자인 편집된 문서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출력 결과물을 생성해 주는 전문화된 솔루션으로 인쇄 검증된 PDF 생성, 완벽한 프리플라이트 기능, 빠른 인쇄 준비가 특징이다. 프리넥 메타디멘존은 PDF 기반의 워크플로에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립으로 CPSI 엔진 및 Adobe PDF 엔진을 사용한다.



프리넥 시그나 스테이션은 PDF 문서를 활용해 인쇄용 판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자동 대첩, 라벨, 패키징, 터잡기 step & repeat, 인쇄기 및 후가공 템플릿 생성 등이 제공된다. 매일경제신문사는 프리넥 워크플로에 투자하게 된 것은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고 교정 품질과 컬러 매니지먼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PDF를 활용해 크로스 미디어 관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만로랜드, 유지보수 프로그램 '프로서브' 공급

만로랜드코리아(주)(대표이사 케네스 엠 한센)는 최근 고객이 투자한 만로랜드의 인쇄 장비를 통하여 고객의 투자목적과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고객의 미래 전략에 도움이 되고자 런칭한 고객 지향 유지보수 프로그램인 '프로서브'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서브(ProServ)는 Pro-active Service의 약어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즉, 프로서브 베이직(ProServ Basic), 스탠다드(ProServ Standard), 프로서브 스탠다드 플러스(ProServ Standard Plus), 프로서브 컴

포트(ProServ Comfort), 그리고 프로서브 슈프림(ProServ Supreme)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서브는 고객이 보유한 인쇄 장비와 관련된 사전점검 서비스로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가치를 증진시키며 예기치 않은 작업 중단을 최소화해 해당 장비로 인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프로서브의 계약 당사자인 고객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쇄 장비에 대하여 기계 및 전기 엔지니어의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어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은 장비의 유지보수 체크리스트에 따른 면밀한 사전 점검과 진단을 받음으로써 고장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을 줄이고 지속적인 고품질 인쇄를 유지하며 아울러 기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만로랜드코리아는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한 발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도리코,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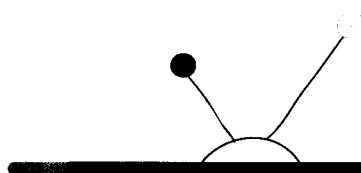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지난 7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신도리코의 이번 기념행사는 서울본사와 아산공장, 전국 지사의 직원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 선배 임직원, 부품협력회사, 우수대리점 대표 등도 초청하여 2500명의 인원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기는 가족잔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50년 역사에 기여해 준 선배 임직원의 노력에 감사하고 현재까지 열정을 다해주는 임직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초청한 것에는 신도리코만의 가족적인 기업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장기거래처와 부품협력회사, 우수대리점과도 돈독한 우정과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감

사와 축하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신도리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는 본행사에 앞서 포토존 촬영 등의 식전행사부터 시작, 장기근속표창, 우수모범사원 포상, 장기거래처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우석형 회장은 창립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창업주 고우상기 선대회장과 신도리코 임직원 가족, 선배임직원, 파트너, 신협회 등 참석자 모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남다르게 걸어 온 50년의 기업문화와 기업가치를 계승하고 새롭게 걸어 갈 50년은 글로벌 브랜드 SINDOH와 함께 세계로 도약해 나가자”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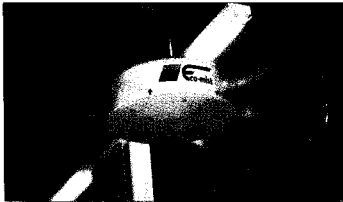
한국하이델베르크(주)(대표이사 김범식)은 지난 6월 25~26일 이틀간 경기도 파주 흥원연수원에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 하이델베르크의 이번 워크숍은 세계 경제 위기와 함께 힘들었던 지난해를 겪으면서 대폭 변화된 조직에 대한 건강도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동시에 앞으로 업계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김범식 대표의 시장 전망과 한국하이델베르크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어 전 직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조직의 건강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이 이어졌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행복한 직장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를 진행하여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 및 제안을 받고 수렴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하이델베르크는 이번 워크숍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실습 그리고 토론으로 이뤄져 재미있고 활기차며 효과적인 시간이 되었고 직원들



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신안테크, 세종씨앤피 신공장에 에어리스 가습기 Eco-mist 공급

신안테크(주)(대표이사 김순호)는 일본 KIDA사의 신제품인 에어리스 (airless) 가습기인 Eco-



mist를 세종씨앤피(주) 신공장에 공급 설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리스 Eco-mist는 저소음과 미려한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 인쇄 공장 내부의 건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억제시켜 인쇄 효율을 증가시켜 주게 된다. 신안테크는 air compressor 방식의 가습기와 비교해 에어 콤푸레샤 필요치 않아 설치비용과 가습기 가동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으며 가습기의 가동 소음이 없어 쾌적한 작업장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세종씨앤피의 김영길 상무는 “새로운 공장에 최고의 인쇄 품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습기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정전기 발생과 용지 신축 방지 및 청정한 공장이 구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상래 성도GL 사장, 서울대 특별강사로 초빙

(주)성도GL / (주)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는 지난 6월 3일 김상래 대표이사가 서울대학교의 ‘경영학개론’의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중소기업 경영



자가 대학생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3~4학년 학생에게 경영학적 시각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인쇄산업이 문화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 했다. (주)성도GL / (주)성도솔루원에서는 앞으로도 미래의 인재들에게 인쇄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성도GL/성도솔루원 아름다운 재단에 사랑의 1% 나눔 기부금 전달



(주)성도GL / (주)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7월 1일, 아름다운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부 프로그램인 사랑의 1% 나눔 운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주)성도GL / (주)성도솔루원은 지난 2005년부터 아름다운 재단에 사랑의 1% 나눔 운동을 펼쳐, 회사의 핵심가치인 삼더 정신에서 따온 ‘삼더 펀드’를 만들어 지속적인 후원을 해오고 있다. ‘삼더 펀드’는 문화 소외 지역의 어린이들이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년 동안 많은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약 2년 동안 모은 것으로 1억 4000여만원에 달하며 전체 임직원들의 급여의 1%와 회사 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성도GL / (주)성도솔루원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일진PMS, 제22회 고모리스쿨 개최

일진PMS(주)(대표이사 박경제)는 지난 7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주)고모리 코퍼레이션과 공동주최로 제22회 고모리스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모리스쿨은 매년 여름 일본 도쿄 고모리 본사 인근에 소재한 ‘고모리스쿨’에서 실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2009년 가을 새롭게 오픈한 KGC(고모리 그래픽 테크놀로지 센터, 쓰쿠바 소재)에서 실시됐다.

KGC에서 처음 열린 이번 고모리스쿨은 업계 종사자 17명이 참가하였으며 공장 환경을 개선하는 5S활동, 인쇄일반이론, 인쇄기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유지보수 방법 및 트러

블 대책법, KHS-AI(고모리 하이퍼 시스템), CMS 이론 등 하타노 과장 및 시바타 강사의 지도아래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강의를 담당한 하타노 과장은 “연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꼭 실제 현장에서 활용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KGC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GC는 고모리 쓰쿠바 공장 내에 신설된 센터로 프린팅컬리지, 시연센터, 훈련센터, R&D센터,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KGC내에는 최신형 고모리 인쇄기 1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모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진PMS, 하계워크숍 및 타임캡슐 매설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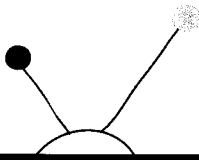
일진PMS(주)(대표이사 박경재)는 지난 6월 4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일진PMS 태안연수원에서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금번 하계워크숍을 통해 상반기 경영평가 및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 간의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KIWI 2013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타임캡슐을 묻는 행사를 가졌다. 금번에 매설된 타임캡슐에는 2013년 변화된 회사의 모습, 개인의 목표, 직원들에 대한 메시지 등을 담아 태안연수원 앞마당에 매설했다. KIWI 2013 프로젝트는 차별성을 갖추고 남들보다 앞선 기업이 되자는 취지에 따라 일진PMS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네트워크 소통되는 미래의 사무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 의해 업무의 데이터화, 실시간화, 비사무실화,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기 위해 ERP 시스템 및 그룹웨어가 일진PMS 사내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컴퓨터 및 핸드폰으로 중앙서버에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신형 단말기 도입과 네트워크 속도 향상으로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코닥, 코닥익스프레스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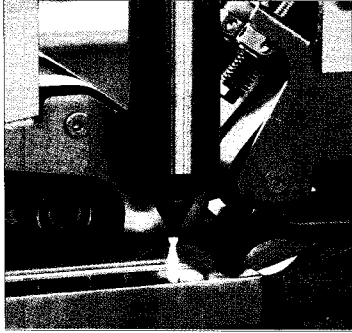
한국코닥(대표 루이스 레벡)은 지난 6월 24일 사진인화 전문점 코닥 익스프레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코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닥 익스프레스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했다. 과거 사진인화 위주였던 코닥 익스프레스를 사진 인화뿐만 아니라 포토북, 포토캘린더, 머그컵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카드 등 이미징과 관련된 제품들을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이미징 전문숍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코닥의 컬러인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친숙하고 깔끔하게 꾸며진 새로운 코닥 익스프레스의 전시부스가 설치되었으며 사진인화 매장의 새로운 장비인 에이펙스(APEX : Adaptive Picture Exchange)가 소개되었다. 에이펙스는 200~500장의 사진을 주로 출력하는 매장에 적합한 인화 장비로 공간이 좁아서 약품 냄새와 소음을 관리하기 힘든 매장이나 위치를 자주 옮겨야 하는 할인마트, 쇼핑몰 등에 입점한 매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한국코닥은 소개했다. 한국코닥은 향상된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500여 개의 코닥 익스프레스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며 새롭게 변화되는 코닥 익스프레스를 통해 사진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정리하고 간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제품 · 제품관련 뉴스

밥스트, 오픈에어 플라즈마 시스템 출시

밥스트(BOBST)의 ‘플라즈마’ 처리는 바니시, 코팅,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물질 재질로 생산 또는 처리된 포장의 접착에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밥스트는 라미네이팅, 바니시 또는 코팅 처



리된 카톤 박스의 접착 품질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플라즈마 방식의 접착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보수적이라는 일본 시장에서 최근 12대를 단기간에 판매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Plasmatrete사에서 플라즈마 처리기술은 밥스트를 포함한 고객의 모든 접착기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합성물질의 접합 및 접착 분야에서 최고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 밥스트의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는 만로랜드코리아는 오픈에어 플라즈마 시스템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비용 절감 효과 : 플라즈마 기술은 특수 처리된 카톤 박스의 표면, 즉, 라미네이팅, 바니싱 또는 UV 코팅 등의 제품 및 플라스틱 계열의 제품에서도 수성 계열의 일반 접착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종류의 포장 박스를 접착하기 위해 핫멜트 등 고가의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접착면의 표면을 거칠게 하기 위하여 절삭 작업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필요한 공정을 거쳐야만 한다.

▶ 품질의 극대화 : 플라즈마 처리는 카톤 박스 접착면의 표면장력을 증가시켜 접착 품질을 극대화 시킨다. 또한 접착 표면에 생길 수 있는 먼지 등의 기타 불필요한 잔류물질을 흔적 없이 제거하는 기능도 발휘한다. 이런 작업들은 분당 최대 650m의 속도로 수행해 BOBST를 포함한 최신형 접착기에 장착할 수 있다. 설치와 운전이 편리하며 기본적인 전기와 압축 공기 외에는 어떠한 부가적인 것도 필요 없다.

▶ 준비된 친환경성 : 플라즈마 처리는 기존의 접착기상에서 접착제 도포 공정 직전에 접착 면에 국한되어 수행되며 플

라즈마 분사구를 통하여 고전압과 강력한 고농축의 공기가 분사됨으로써 접착표면의 분자구조를 활성화시킨다. 이때 오존 등 기타 부산물은 전혀 생성되지 않으며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 다양한 적용 : 오픈에어 플라즈마 시스템은 카드보드, 골판지, 모든 플라스틱 재질과 PE, PP, OPP, PBT, 아세테이트 등의 재질, 내부 외부의 UV 코팅 재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 가까운 데모룸 : 이 시스템의 구매를 원할 경우 가까운 일본 현지 인쇄회사를 방문하거나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BOBST 데모 룸에서 그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만로랜드코리아(02-777-5271)에 문의하면 된다.

리소코리아, 디지털인쇄기 8기종 조달청에 등록

(주)리소코리아(대표 우에무라 사토시)는 디지털 인쇄기 8기종을 새로운 물품식별번호로 조달청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은 ‘EZ시리즈’ 5종(EZ230A, EZ230i, EZ230Aj, EZ370A, EZ370Aj)과 RZ970A, 옵션 제품인 자동원고이송장치와 신형 고속 반복분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Z시리즈’는 분당 최고 130매의 인쇄속도로 1000매 분량의 인쇄를 8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슬립 모드로 변환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리소코리아는 이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학교 및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며 앞으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신형 고속 반복분리기 제품이 추가되어 공공 부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잉크, 녹색경영대상 제품 부문 대통령상 수상

대한잉크(회장 한진수)는 지난 6월 3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제품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잉크는 세계 최초로 무용제형 오프셋 잉크(제품명 솔프리) 개발에 성공해 국내 특허출원과 친환경마크 획득은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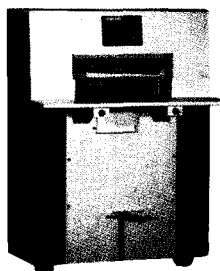
론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취득한 친환경 기업이다. 그동안 환경 친화적 인쇄잉크 제품으로는 대두유 잉크(Soy Ink)가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기존 저공해 오프셋 잉크의 대명사인 대두유 잉크는 유기용제 함량이 기준이 아니라 대두유 함량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제품이다.

대한잉크가 만드는 친환경 제품은 솔프리를 비롯해 오프셋·윤전 대두유 잉크, 아동용 친환경 잉크, 수성 코팅 및 항균 코팅제, 무습수 잉크 등 시중품과 각종 주문품을 포함해 80여 종에 이른다. 또한 대한잉크는 전사적 환경 경영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품질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5년부터 3년 동안 환경 및 혁신 컨설팅을 수행했고 현재는 자체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내에서는 환경·품질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장에는 모든 임직원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환경·품질 관련 지표를 공개하고 있다.

한진수 회장은 수상소감에서 “친환경 인쇄잉크 선도 기업으로서 더욱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슬, 인쇄 후가공 장비 S-510 재단기 출시

후슬(주)(대표이사 김주호)는 최근 신제품 재단기 S-510을 출시하고 공급에 들어갔다. 인쇄후가공 솔루션 전문업체인 후슬에서 출시한 S-510은 맞춤형 일반재단기로 순수 국산기술로 제작됐다. 경인쇄 및 디지털 인쇄 후가공 장비인 S-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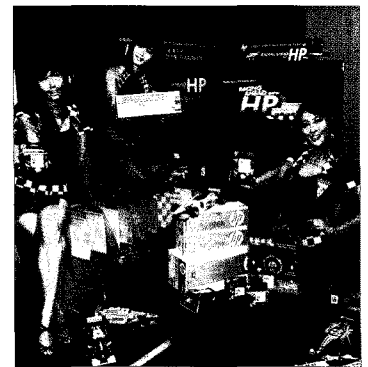


재단기의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단폭 510mm으로 클램프 최대높이 90mm, 최소재단길이는 20mm, 최대는재단 길이는 510mm, 앞테이블 길이는 400mm이다.

또한, 정단높이는 900mm이며 1.8kW 220V단상 전력과 승강 압력은 500~1,500kg, 무게는 390kg이다. S-510은 임베디드 컴퓨팅의 편리한 제어 시스템으로 7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혁신적인 UI 디자인, 스마트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공정 및 100스텝이 저장되며 각종 표준 규격 종이 길이 프리셋 기능(재단규격표 내장)과 사용자 설정 위치 기능, 자동/수동 모드, 기계 유지보수 카운터 및 사용자 알람, EzF(Easy Formula : 이전 함수기능) 제공, 자동입력과 밀어내기 기능, EDR(Event Data Recorder) 기능으로 빠른 서비스 지원, 예러 메세지 한글 표시, 전세계 언어 지원, 달력/시계 기능, 제어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또한 서보 모터에 의한 빠르고 정밀한 위치 제어와 유압시스템에 의한 승강 및 재단이 작동하며 CE기준에 의한 안전 설계와 레이저 재단선으로 정확한 재단을 위해 주요 부품은 주물소재가 적용되어 쉬운 이동 및 설치가 가능하다.

HP, 혁신 기능 강화한 잉크 제품 선택

한국HP는 지난 7월 14일 친환경 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 37%까지 높인 잉크 및 토너 신기술 및 제품을 소개했다. 새롭게 소개된HP 잉크 및 토너 카트리지 기술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흑백 출력 품질의 강화, 광택 및 색채 범위 개선, 비용 절감 등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HP는 HP 잉크 및 토너와 리필제품에 대한 비교 연구를 독립 연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뒤 HP 제품의 최상의 품질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품 HP 잉크젯 카트리지와 리필 잉크젯 카트리지에 대한 2010 독일 티유브이 슈드 피에스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품 HP 잉크가 리필 잉크에 비해 출력 생산성이 2배나 높았으며

정품 HP 잉크젯 카트리지와 리필 잉크젯 카트리지에 대한 2010 독일 티유브이 슈드 피에스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품 HP 잉크가 리필 잉크에 비해 출력 생산성이 2배나 높았으며



리필 잉크 카트리지의 출력효율은 42%로 나타났다.

정품 HP 레이저젯 카트리지와 리필 레이저젯 카트리지에 대한 또다른 비교 연구인 2010 퀄리티로직(QualityLogic)의 연구 결과에서도 리필 브랜드의 토너 카트리지 중 60% 이상이 배달 시 초기 불량이거나 낮은 품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 대상인 리필 토너 카트리지의 경우 샘플 페이지 출력 시 HP 제품에 비해 토너 정착성 관련 문제가 7배나 많았다.

오키프린팅솔루션, 정보처리기술유산 인증 획득

한국오키시스템즈(대표 유동준)는 오키프린팅솔루션이 44년전 개발한 2400B형 라인 프린터가 일본정보처리학회로부터 '정보처리기술유산'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보처리기술유산 프로그램은 일본 정보처리 기술의 토대를 형성해 온 역사적인 제품과 기업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일본 경제와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정보처리 기술과 시스템을 인증하기 위해 일본정보처리학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한국오키시스템즈의 유동준 사장은 "44년전 개발된 2400B형 라인 프린터는 현재 오키 제품라인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해에 이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유산으로 인증 받은 것은 오키 프린터의 혁신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증 소감을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 기업 블로그 '색콤달콤' 오픈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7월 1일 기업 블로그 '색콤달콤'을 공식 오픈하고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의 블로그 이름인 '색콤달콤'은 색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

후지제록스가 진행하고 있는 광고 캠페인 '땡큐 컬러(Thank You COLOR)'의 콘셉트인 '컬러로 모두가 즐거운 비즈니스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한국후지제록스의 블로그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일러스트로 디자인 되었으며 카테고리 이름 또한 '신통방통 솔루션', '즐감동감 직장인', '소곤소곤 다이어리' 등 부드럽고 톡톡 튀는 용어를 사용해 친근감을 높였다.

블로그_ <http://blog.fujixerox.co.kr>

한국엡손, 정품잉크 당일 무료배송 서비스

한국엡손(대표 쿠로다 타카시)은 '엡손 정품잉크 당일 쿵 배송서비스'를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품잉크 당일 쿵 배송 서비스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안양, 과천, 광명, 군포, 부천, 고양, 일산 분당, 성남) 거주자를 대상으로 엡손의 당일 배송 서비스에 적용되는 정품잉크를 구매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당일 배송 서비스 적용 잉크모델은 73N, 73HN, 81N, 82N, 103, 133, 138, T007, T009이다.

한편 무료 당일 배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G마켓, 옥션, 11번가, GSeshop에서 당일 배송 대상 제품을 선택한 후 오전 11시 까지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면 된다.

어도비, 대구 부산서 CS5 신제품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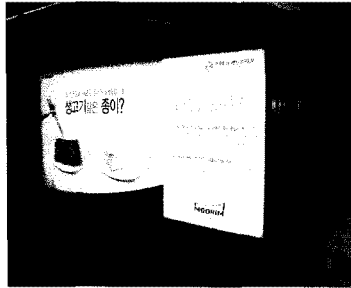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 지준영)는 최근 출시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5(CS5)'를 보다 많은 사용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소개하고자, '어도비 CS5 신제품 발표회 in 대구&부산'을 개최했다. 어도비 CS5 신제품 발표회는 대구에서 7월 6일 엑스코 국제회의장 211호에서, 부산에서는 7월 8일 부산디자인센터 6층 이벤트 홀에서 열렸다.

대구와 부산지역 어도비 CS5 신제품 발표회에서는 한국어도비의 국제 공인 전문가들이 디자인, 웹, 비디오, 그리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환경의 비전을 제시하며, 업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CS5의 획기적인 신기능과 혁신적인 워크플로를 소개했다.

제지뉴스

무림, 지하철 광고 런칭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하철 3호선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내년 5월 상업생산하는 일관화 제품을 알리는 2차 브랜드 광고를 시작했다



이번 광고는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과 충무로역 내 스크린 도어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광고를 게재했다. 무림측은 주요고객 밀집지역인 을지로 인쇄골목과 지류유통상가에 일관화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매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림은 내년 일관화공장 건설을 계기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브랜드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올 상반기 무림 본사 사옥의 LED 광고를 시작으로 고객밀집지역인 3호선 을지로3가역, 충무로역의 이번 광고를 전개하며 앞으로도 보다 영향력 높은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광고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무림, 해외시장 전략적 파트너십 미팅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7월 5일 서울 신사동 본사 갤러리에서 해외시장 전략적 파트너십 미팅을 가졌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수출 주요 에이전트 10여개 사 대표들을 초청해 무림과 협력업체간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인규 부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홍보동영상과 프

리젠테이션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무림의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무림의 일관화공장 완공이 D-300일을 맞아 일관화공장 건설현황과 그에 따른 비전을 공유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상호간 윈·윈 전략에 대해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무림P&P, 애널리스트 초청 기업설명회(IR)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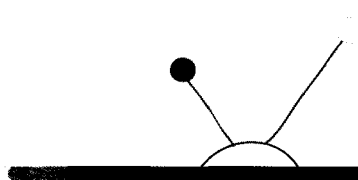


무림P&P(대표 김인중)가 지난 6월 23일 울산공장에서 애널리스트 초청 기업설명회(IR)를 가졌다. 이번 IR은 국내 주요 증권사 제지담당 애널리스트 약 15명이 참석, 무림P&P의 주요 경영현황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어 펄프공장 견학과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일관화공장 현장을 방문했으며 무림P&P는 이번 IR은 제지담당 애널리스트들에게 현장의 정보를 생생하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내년에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펄프·제지 일관화공장을 건설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게 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한국제지, 2010년 임단협 타결 및 조인식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4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두 달간 총 8차에 걸쳐 진행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되어 지난 6월 30일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사의 모두 적극적인 교섭으로 지난 해에 비해 빨리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고





잠정 합의안은 각 반별로 총 5번의 공청회를 거쳐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67%로 가결되었다. 조인식 이후에는 임단협 타결을 기념하는 뒷풀이 행사가 마련되었고, 참석한 임직원 모두 17년 무분규 타결을 축하하며 경쟁업체 대규모 증설, 경쟁 심화 등 어려운 대내외적 경영환경 속에서도 노사가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제지, 펄프제지기능사 응시자 전원 최종 합격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6월 18일 발표된 펄프제지 기능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자사의 응시자 61명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펄프제지기능사 자격증반은 지난해부터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개설되었으며 참가자 모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학구열로 학습에 매진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실기시험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한국제지는 이러한 성과 뒤에는 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사내 강사들과 수험생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사원들의 자기개발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제지, SBS-TV 꾸러기 탐구생활 협찬 진행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SBS -TV 어린이 교양 프로그램 '꾸러기 탐구생활'의 촬영 협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SBS 제작팀은 지난 7월 14일 '종이는 10번 이상 접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서울 목동 소재 목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폭 5.1m의 대형 종이를 접는 실험을 하여 촬영을 마쳤으며 7월말 방영되었다.

해외뉴스

고모리 회장, 글로벌 프린트 신임회장으로 선임

일본인쇄산업기계공업회(이하 인쇄공업회)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이 글로벌 프린트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인쇄공업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글로벌 프린트 회장 선출회의에서 가맹국 10개국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앞으로 2년간 세계 인쇄기계산업을 위해 수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모리 신임회장은 "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인쇄공업계를 위해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프린터는 세계 각국의 인쇄산업기계공업회가 모여서 조직한 연합회로 지난 2008년 5월 뒤셀도르프(독일)에서 창립되었다.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등 10개 국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쇄산업계 발전을 위한 글로벌한 대처와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Kern Druck, 코닥 PROSPER S10 임프린팅 시스템으로 DM 구축

독일의 프린트 서비스 회사인 Kern Druck(주)는 Kodak Prosper S10 Imprinting Systems을 자사에 구축, 워크플로 과정을 자동화하고 다이렉트 메일 생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Kern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주요 화장품 소매업자, 소비자 사업자, 관광업체, 보험사들 중 1만~1백만통 규모의 운영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위한 다이렉트 메일과 광고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조인트 매니징 디렉터인 Andre Kern은 "하이브리드 프린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광고물 사업이었다며 처음에 간단한 잉크젯 프린트헤드를 시도한 결과 보다 정확한 품질 사양을 지향하여 레이저 프린터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더욱 합리적인 가격의 잉크젯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 형식과 용지 타입에 최대의 유연성을 줄 수 있는 end-to-end 솔루션을 통해 메일서비스 운영방식의 완전한 재편을 고려하게 되었고 Prosper S10 Imprinting Systems은 완벽하게 이러한 콘셉트를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Kodak Prosper S10 Imprinting System은 코닥 스트림 잉크젯 기술을 실현한 최초의 제품으로 꼽히고 있으며 2009년에 최대 1000 fpm/305mpm으로 오프셋 수준의 가변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흑백 각인 시스템으로 첫 선을 보였다. 각각의 프린트헤드는 105.6mm의 각인 너비로 디자인되었으며 PROSPER S10 System은 마이크로 가공 색소와 함께 색소 기반의 잉크를 사용하고 해상도는 600 × 600 dpi이다.

코닥 넥스프레스 SE Class · 디지털마스터 EX 시리즈 editor's choice 수상

코닥은 코닥 넥스프레스 SE Platform과 코닥 디지털마스터 EX 디지털 프로덕션 시스템이 각각 Better Buys for Business의 연간 디지털 리뷰에서 editor's choice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마스터시스템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BBB editor's choice 어워드를 수상해 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코닥 넥스프레스 SE 플랫폼을 “거대한 오프셋인쇄 시장에서 디지털 인쇄 업계가 얼마나 엄청난 수준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척도이며 코닥 디지털마스터 EX 시스템은 대량인쇄 바이어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인상적인 주문 인쇄 시리즈”라고 설명했다.

에디터 초이스는 어워드 수상자를 선정할 때 모든 업체들의 수백 개의 복사기, 인쇄기, 팩스기, 스캐너 모델을 평가하지만 각 카테고리의 1개 또는 2개 업체만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최고의 가치를 대변하는 제품을 수상작으로 택한다.

코닥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 월드와이드 PM인 Chuck Hura는 “editor's choice는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의 디지털 컬러와 흑백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코닥의 소명을 보여준다고 코닥의 혁신적인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은 고객들이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그들의 사업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가치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Better Buys for Business는 디지털마스터 EX 시리즈에 대해 “플랫폼은 고객들이 대량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빠르고 다재다능한 방법”이라며 “검증된 품질, 성능, 생산성 및 유연성으로 인쇄업계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빠른 처리시간, 고품질의 고급화된 마무리 기법을 통해 어떤 까다로운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 갈루스 EMS인쇄기에 알루미늄 실린더 슬리브 공급

하이델베르크는 갈루스 EMS인쇄기에 알루미늄 실린더 슬리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슬리브 기술이 일반화된 이후 다양한 합성 실린더가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다. 가벼운 디자인으로 취급은 쉽지만 노후화에 따른 인압이 정확하지 않은 단점을 갖는 합성 슬리브를 대체하기 위한

알루미늄 인쇄 실린더 슬리브는 노후화되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는 밝혔다.

인쇄 실린더 슬리브는 하나의 부속으로 만들어지며 매우 단순하고 인쇄기에 설치하기 쉽다. 인쇄 실린더 슬리브는 설정과 인쇄 작업 후 시간을 크게 절약되며 갈루스 EMS의 인쇄 실린더 슬리브는 버튼을 누르면 슬리브가 위치 변경에 들어가고 변경 자체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진다.

갈루스 EMS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인쇄 실린더 슬리브는 합성 제품과 거의 비슷한 무게이며 정확성과 내구성을 갖췄다. 노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사용 기간 내내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마모와 관련된 노후 현상이나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알루미늄 인쇄 실린더 슬리브의 이점으로 갈루스는 갈루스 RCS 330 모델에 수년간 이 슬리브를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런 슬리브의 이점이 이제 Gallus EMS 모델에도 가능하게 되어 기존 모델도 개조가 가능하다.

하이델베르크, 엑스포프린트서 높은 관심

지난 6월 23일 부터 29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엑스포프린트라틴아메리카(ExpoPrint Latin America 2010)에 참가한 하이델베르크사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에 따르면 종합적인 범위의 최신 기술 및 서비스가 고성능-고부가가치(HEI Performance-HEI Value)의 슬로건 아래 전시됐다. 1500 평방미터에 이르는 공간에서 하이델베르크는 광고와 패키징 인쇄를 위한 전체 제작 공정을 전시했는데 프리프레스에서 인쇄 및 후가공에 워크플로 통합, 사피라 인쇄재료, 부품, 서비스 계약 및 기타 서비스도 포함되었다. 또한 방문객은 상파울로에 있는 하이델베르크의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 남아메리카에서 인쇄 산업을 위한 다양한 트레이닝 코스를 체험할 수 있었다. 하이델베르크의 번하르트 슈라이어 CEO는 “중국과 함께 브라질은 하이델베르크 사에 중요한 이머징 시장으로 인쇄 산업에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많은 수의 업체와 대규모 업체가 ExpoPrint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 하이델베르크 비즈니스 발전에서 이머징 시장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EX2010에서 소개되었던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CX102 매엽오프셋인쇄기도 남아메리카에서 첫 선을 보였다.